## 제4강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감각론

(1교시) J_jkJin02_040706_02.asf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로 그의 강의 초고(草稿)를 아들 니코마코스가 엮었으므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한다. 이 책은 덕, 선, 우애, 쾌락 등의 주제를 통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 그리스의 쾌락의 활용**

그리스 인들의 가치 체계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미학적이었다. 예컨대 쾌락과 욕망을 윤리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절한가'의 문제, 자기 통제, 스타일을 중요시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욕망이나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배분하고 조절하는 방식에 있어 얼마만큼 신중하고 계산적이냐 하는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절제'와 '중용'이었다.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타난 오감의 문제**

"용기 다음에는 절제에 대하여 말해 보기로 하자. 이것들은 다 같이 정신의 비이성적 부분의 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절제가 쾌락에 관하여 중용인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이것은 절제가 고통과는 쾌락만큼 관계가 깊지 못한 때문이다). 방종도 같은 영역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먼저 절제와 방종이 어떤 종류의 쾌락과 관계하는가를 규정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나누어볼 수 있다. 정신적 쾌락이란 명예를 좋아하는 것, 혹은 학문을 좋아하는 것 따위이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이 기쁨은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정신만이 맛보는 것이다. 이러한 쾌락에 관계하는 사람은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도 방탕한 사람이라고도 불리우지 않는다. 또 이밖에 육체적 쾌락 아닌 다른 쾌락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절제가 있다거나 방종하다거나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가령, 이야기를 듣거나 남에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며 날마다 하잘 것 없는 이야기로 소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잡담꾼이라 하지만, 방종한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으며, 또 돈이나 친구를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절제는 육체적 쾌락에 관계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나, 그 전부에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의 대상, 가령 색채나 모양이나 회화 같은 것에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제가 있다고도 방종하다고도 하지 않으니 말이다. 물론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맛보는 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알맞을 수도 지나칠 수도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하다.

청각의 대상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즉 아무도 음악이나 연극을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들을 방종하다고는 하지 않으며, 또 알맞게 즐기는 사람들을 절제 있다고도 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냄새에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제가 있다던가 방종하다던가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물론 이때 냄새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만. 즉 우리는 사과나 장미꽃이나 향료의 냄새에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을 방종하다고 하지는 않지만, 불고기나 화장품의 냄새에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종하다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방종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욕망의 대상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가끔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물의 냄새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보는데, 이런 종류의 것에 기쁨을 맛보는 것은 방종한 사람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간 이외의 동물에는 이상의 여러 감각에 결부된 쾌락이란 것이 없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가령, 개는 토끼의 냄새에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어치우는 데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냄새는 토끼가 어딘가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그 개에게 알려주었을 따름이다. 또 사자는 소의 울음소리에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먹는 데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만 그 울음소리에 의하여 소가 자기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며, 따라서 그 소의 울음소리에 기쁨을 느끼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자는 "노루나 염소"를 보는 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맛있게 먹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절제와 방종에 관계가 있는 쾌락은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동물도 역시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요, 따라서 노예적이고 금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즉 촉각과 미각의 쾌락이다. 그러나 미각도 절제와 방종에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 혹은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미각이란 본래 맛을 가려보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술맛을 검사하는 사람이나 조미인(調味人)이 맡아보는 일인데, 이렇게 맛을 가려보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고, 방종한 사람도 이런 일에서는 기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는 것은 언제나 촉각에서 오는 실제적 향락, 즉 음식물이나 성교 같은 향락에서이다. 어떤 미식가(美食家)가 그의 목구멍이 학의 목구멍보다 길게 될 것을 기구(祈求)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감촉에서 쾌락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방종이 결부되어 있는 감각은 모든 감각들 가운데 가장 널리 모든 동물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동물로서의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종은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 오는 터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좋아하는 것은 금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촉각에서 오는 쾌락들 가운데서도 가장 점잖은 것들, 가령 체육에서 몸을 비비거나 또 이렇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 같은 것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무릇 방종한 사람의 특색을 이루는 감촉은 몸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만을 건드리는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장 전문)

**◆ 중세 기독교 철학과 감각론**

보티첼리가 그린 '산드로 서재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 소장.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

기독교 철학의 선구자. 수사학 학자로 활동하다가 북아프리카의 중심지인 카르타고에서 10년을 지내고 로마로 이주,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밀라노에서 32세의 나이로 기독교로 개종했다.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북아프리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히포에서 34년간 주교생활을 하며 『고백록』, 『신국론』, 『삼위일체론』 등 113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고백록』**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40세 때 저술한 자서전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저술 중의 하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탕했던 시기에서 마니교에 빠졌다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기까지의 참회 생활을 중심으로 엮어낸 것이다. 자신에 대한 기록 10권과 성서에 대한 해석 3권 등 총 13권으로 되어 있다.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회개의 삶을 고백한 작품이지만, 단지 죄스러운 삶에 대한 고백만을 담았다기보다 작품 전편에는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더 많이 표현되어 있다. 또 이 『고백록』에서는 참회와 죄에 대한 개념이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이해되었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 정욕**

꿈에서는 제어할 수 없다. 이성도 잠을 자는가? *"전능하신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손길이 제 영혼의 무능을 고치시고, 제가 잠들었을 때에도, 당신의 은혜로 육정의 자극을 물리치게 하여 주소서."*

**≫ 식욕**

*"저는 일찍이 이성과의 접촉에서 그러했듯이, 일단 뜻을 정하여 한 번 끊어버리고 난 후에는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이 식욕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너의 욕심을 좇지 말고, 너에게 [쾌락]이 되는 것에서 멀리 떠나라'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 향기**

별 유혹은 없지만, 마음을 놓지는 말자.

**≫ 음악**

*성가의 소리와 가락이 나를 감동시키는가, 아니면 그 가사인가? "영혼이 '감각 기관의 즐거움'에 '굴복'하여 가끔 속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정'이 '이성' 뒤를 묵묵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성을 앞질러 길잡이 노릇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을 읽는 사람에게 노래하기보다는 낭송하는 듯이 목소리의 고저를 되도록 적게*

*하라고 타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가사보다 노래 가락이 더 저를 감동시켰다면 이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로 생각하며, 차라리 노래 소리에 귀를 막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 빛과 색채**
*"겉으로만 아름다움을 창조하기를 숭상하는 자들은 그 숭고한 미를 판단의 척도로 삼지만, 그 선용의 척도는 거기서 취하지 못합니다."* 영혼>손재주

**≫ "안목의 정욕"**
앞선 육체의 정욕들과는 다른 종류의 정욕이다. 쾌락이 아닌 호기심을 위한 정욕. 징그러운 송장을 보려고 뛰어가는 사람들. 극장의 무시무시한 장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런(개가 토끼를 좇는) 광경을 목격하면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깊은 사색에서 떠나게 되며, 딴 길에서 헤매게 됩니다."*
*"거미줄에 파리가 걸리면 거미가 곧 달려와 이를 휘감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목격하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당신을 찬미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이런 심정으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